

西江大의 學生學習活動 중심의 영어 교육

鄭 東 洙
(西江大 教養英語課程部)

1. 교양영어 교육의 기본 목표

西江大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양영어 교육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때 언어 능력은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며, 정보 수집의 도구로서 필요한 言語遂行能力을 의미하기도 한다. 영어를 통해서 교양을 넓힌다든지, 학생의 전공 과목이나 전공 학문, 또는 사회 진출에 필요한 도구로서 영어가 사용되는 것은 1차적으로 언어 수행 능력이 향상된 다음에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흔히 과목 명칭을 교양영어라고 한다든지, 영어를 단순히 道具科目이라고 말하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언어 능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영어를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수행 능력을 뜻한다. 이러한 것은 이해와 지식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현실 생활에서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언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종전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言語學習活動 중심으로 영어 교육을 실시해야만 한다.

또한 영어 교육에 있어서 필히 지켜져야 할 보

편적인 원칙은 학생들이 영어와 접해야 하며, 이 접했던 영어를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의 대부분을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言語學習活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교수, 학생 공히 영어만을 사용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교양영어는 영어영문학과 학생들을 위한 영어 교육이 아니라, 영어영문학과 학생을 포함한 대학생 전체의 영어 교육에 봉사하는 것을 제1의 의무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독립된 전담 부서 설치 및 운영

서강대 교육과정에선 졸업 이수 학점인 140학점 가운데 교양영어 필수 학점으로 12학점이 배정되어 있다. 그리고 교양영어 필수 학점을 취득한 3, 4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부전공이나 교양선택으로 교양영어 과목이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서강대의 전체 教育課程의 약 10% 이상을 교양영어 과정이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교양영어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教養英語課程部라는 독립된 전담 부서가 설치·운영되

고, 또 이 전담 부서를 담당하는 전문인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 서강대 개교 직후 영어영문학과 소속 외국인 神父의 주관하에 독특한 교양영어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개발·운영된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개편되어 왔다. 현재와 같은 교양영어 프로그램이 확립되고, 아울러 전담 부서가 설치된 것은 1981년에 이르러서였다.

1) 교양영어 과정부의 인적 구성

교양영어 과정부에는 교양영어 주임교수 1명, 부주임교수 1명, 전임교수 1명 등 3명의 교양영어 전임교수가 있다. 이들 전임교수들은 영어영문학과 소속으로 교양영어 과목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영어영문학과와의 어학에 관련되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교양영어 과정부의 프로그램은 영어영문학과에서 독립되어 운영된다.

교양영어 과정부에는 1986학년도 2학기 현재 16명의 임시 전임강사가 있다. 이들은 12시간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상 full time job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해진 주당 학생 면담 시간을 지켜야 하며, 定期 週間 科協議會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임시 전임강사 중에는 외국인이 12명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미국인이다. 이들 임시 전임강사 중에는 Ph. D. 소지자가 1명 있으며, 영어 교육 전공자로서 M.A. 소지자가 4명 있다.

시간강사는 14명으로서 주당 6시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과협의회에 참여해야 한다. 과협의회에선 교양영어 전임교수, 임시 전임강사, 그리고 시간강사들이 앞으로 가르쳐야 할 과제, 교육 자료, 교수법, 평가 등을 포함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교수들이 수업 시간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또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는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과협의회를 통한 상호 협의는 교양영어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된다. 이밖에 조교가 18명 있는데, 이 중 2명은 대학원생으로 주당

20시간을 근무하며, 나머지 16명은 학부 3, 4학년생으로 주당 12시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 선발 기준

본교의 교양영어를 담당하는 한국인 임시 전임강사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언어 능력이 적어도 本土人과 비슷해야 한다(pseudo-bilingual). 영어가 정확하고 유창해야 하며, 수업 시간에서의 영어 구사가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수업을 영어로 진행시킬 수 있는 분
- ② 외국에서 영어 전공으로 M.A.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분
- ③ 언어 교육의 원칙을 이해하고, 수업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의 능력 발달을 기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하고 교육 자료, 절차, 教授要因 등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분
- ④ 학생을 문화적, 교육적으로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으로서 학생과 함께 일하는 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라야 함

3) 교양영어 과정부에서 하는 일

서강대 교양영어 과정부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양영어 프로그램 자체 개발
- ② 教授法 개발
- ③ 교육 자료 개발(자료 평가, 재편성, 자체 개발)
- ④ 컴퓨터, TV, 녹음기, 환등기 등 교육 기재 구입 및 관리
- ⑤ 교수 요목 작성
- ⑥ 학습 평가 및 출제
- ⑦ 외국인 교수 채용에 따른 법적 수속 절차
- ⑧ 강사 채용
- ⑨ 예산 집행과 금전 출납 기록
- ⑩ 조교 훈련
- ⑪ 시간표 작성
- ⑫ 워크샵
- ⑬ 定期 週間 會議

- ⑭ 학생과 교수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상담 및 해결
- ⑮ 교과 과정 개편
- ⑯ 교재 인쇄
- ⑰ 교수, 조교, 학생들의 사기 진작 등

4) 예 산

매년 예산을 교양영어 과정부의 주임교수가 학교에 신청하여 확보한다. 1년 예산액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본교의 다른 학과에 비해 학교의 전폭적인 재정적, 정신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타대학의 교양영어 과정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그것은 임시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의 수가 다른 대학보다 월등하게 많아 강사들의 人件費만 하더라도 엄청난 액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교양영어 과정부에서 집행하는 예산 내역으로 교재 개발비, 교육 기재 구입비, 문구류 구입비, 과 운영비 등이 있다.

3. 교양영어 교과 과정 편성

1) 교양영어 필수 및 선택 과목

서강대의 교양영어 필수 과목은 <표 1>과 같다.

<표 1> 교양영어 필수 과목

과 목 명	학점	주 당 시간수	이수 학년 및 학기
영어커뮤니케이션 I	2	3	1학년 1학기
영어커뮤니케이션 II	2	3	1학년 2학기
영 어 화 법 I	2	2	1학년 1학기
영 어 화 법 II	2	2	1학년 2학기
영 어 독 해	2	3	2학년 1학기
영 어 청취력연습	2	2	2학년 2학기

영어 커뮤니케이션 수업은 1개반 당 25명 내외를 정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小單位授業이다. 반 편성은 능력별로 하고 있으며, 소단위 수업 반은 총 65개이다. 분반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강사를 필요로 한다.

영어 화법, 영어 청취력 연습은 TV를 이용한 대단위 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 학생과 교수와

의 관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VTR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양영어 과정부에선 8개의 교양영어 전담 교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들 교실에서 교양영어 필수 과목 수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교양영어 필수 과목을 이수한 3, 4학년 비영 어영문학과 학생을 위한 선택 과목으로 영문학 강독, 고급 영문 독해, 영어 스피치, 영어 작문, 중급 영어 연습, 고급 영어 연습, 고급 영어 회화 I, 고급 영어 회화 II를 제공하고 있다. 1986년도 2학기 예비 수강 신청에서 720명이 교양영어를 선택 과목으로 택하였다. 따라서 서강대 학생수의 10% 이상이, 3, 4학년 때에 교양영어를 선택 과목으로 수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영어 커뮤니케이션 소분반

1학년 1학기 때는 입학 후 150명을 한 단위로 해서 실시한 評價試驗을 토대로 그 중 50명을 순위대로 선발하여 2개의 우수반(high section)에 배정하고, 나머지 100명은 4개반에 공평하게 배정한다. 2학기 때는 1학기의 영어 I 과 영어 3의 성적과 담당 교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반 편성을 하는데, 1개의 우수반을 둔다.

能力別 班編成에 대해서는 교수들 사이에서의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능력별 반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있고, 또 능력별 반 편성을 하지 말고 평준화하자는 교수들이 있는가 하면, 우수반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우수반에 반대되는 개념인 열등반(low section)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를 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교수들도 있다. 이들 의견들은 각각 학생의 교육에 대한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검토중에 있다.

4. 교수·학습 방법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가르쳐야 할 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應用言語學, 심리학, 교육학 등에서 이론을 많이 도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教室現場

에 들어 갔을 때는 이론적인 것이 분제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으로 하여금 언어 학습 활동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 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교양영어 교육에 있어서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학습을 위한 修鍊道場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언어와 접하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 진행을 영어로 해야만 하며, 학생 개인의 학습 활동을 위한 학습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 학습 활동으로 pair work, group 학습, debate, role play, demonstration, presentation, drama 등이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학생과 학생간의 인간 관계, 학생과 교수와의 인간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가 이해되었을 때만 피이드백이나 인간적인 반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율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만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능력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1) 영어 커뮤니케이션

영어를 통해서 英·美文化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등하게 영어를 통해서 학생의 의사·감정 등을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어떻게 보면 언어 능력은 교과서나 외부적인 상황에서 온다기보다는 학생의 내면에서 창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곧 학생들이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교사는 낮아져야 되고 학생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는 말을 적게 하고, 대신에 학생으로 하여금 많이 이야기하게끔 하는 교수 방법을 택하고 있다. 교사는 수업 시간 50분 동안에 5~10분만 이야기하고, 학생들은 40~45분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을 5~10분 동안에 집약하여 지시하기 위해선 사전에 많은 교과 준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만 된다.

영어 커뮤니케이션 시간에는 그룹 토의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학습

활동 행위들을 결들이기도 한다. 그룹 토의는 한 가지 주제를 설정하여, 그 주제에 대해 학생들 상호간에 영어로 집단 토의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수업 시간 외에 필요에 따라 학생이 학생을 인터뷰하거나, 학생이 교수를 인터뷰하기도 한다.

2) 영어 독해

영어 독해 시간에는 個別化授業을 한다. 개별화 수업이란 학생 수준에 알맞은 교재가 주어져서 학생 스스로 영어 독해 기술을 연마토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선 독해 기술, 독해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를 실습할 수 있는 독해 자료가 주어지며, 아울러 독해 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속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실습을 한다. 독해의 연습량을 늘림으로써, 또 독해를 실제 체험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諳解戰略을 수립하고 이를 內在化한다. 주교재는 *Reading for Understanding* 이다.

3) 영어 청취력 연습

영어 청취력 연습 시간에는 영국 B.B.C.의 Sadrina Project 의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영어 청취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 수업은 TV를 이용하는 대단위 수업이다.

4) 기타 영어 선택 과목

영어 작문, 영어 회화 I, II, 영어 스피치 과목 시간에는 25명 내외의 학생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집중 교육시킨다.

5. 교재 개발 및 教師指針書 작성

1) 교재 개발

1학년 교양영어 필수 과목인 영어 커뮤니케이션과 영어 화법의 경우,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재를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 모른다. 학생들의 수준도 다를 뿐만 아니라, 敎育環境도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알맞은 교재를 개발한다는 것은 그것에 소모되는 시간, 경제력, 人力 등을 감안해 볼 때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학생들의 수준과 필요성, 관심 등을 참작

하여 보유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교과서 중에서 일부분을 취사선택, 종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우리 실정이다. 따라서 어느 일정한 교재가 오랫동안 사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도 없고 보장도 없다. 교재를 개발할 때에는 각종 자료를 광범위하게 그리고 신속성 있게 다룬다. 매학기마다 학생들의 반응과 교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기존 교재 중에서 학생들의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빼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만 취사선택하여 인쇄한다. 결국 매학기마다 改正版을 내고 있는 셈이다.

2) 교사 지침서 작성

교사들이 영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소단위 수업이나 영어 話法과 같은 대단위 수업에 항상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教師指針書(teacher's guide)가 있다. 교사 지침서에는 구체적인 학습 활동, 교육 자료, 가르쳐야 할 요점 등이 明示되어 있다. 교육용 VTR을 구입해서 재편성하고,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끔 하는 教師指針書를 작성한다는 것이 교양영어 과정부의 큰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사 지침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연구와 실험을 필요로 한다. 교사 지침서에 실을 내용은 科協議會에서 토의되며, 교육 경험이 많고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교사가 작성한다.

6. 학습 평가

영어 커뮤니케이션 과목에서 학습 평가를 할 때에는 수업 시간에서의 학생 참여도, 학생의 영어 실력, 향상도, 학기초와 학기말의 개인 인터뷰 등을 모두 감안한다. 필기 시험보다는 口頭試驗을 더 강조한다. 따라서 평가 방법이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 화법, 영어 독해, 영어 청취력 연습과 같은 대단위 수업에서는 시험 문제를 수업 시간에 공부한 범위내에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것을 토대로 응용할 수 있어야만 풀 수 있게끔 출제한다.

대단위 수업에서는 2주에 한번씩 퀴즈 시험을 실시하며, 학기당 4번의 定期考查를 실시한다. 담당 과목 교수가 일일이 채점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양이기 때문에, 채점 기계를 통해서 채점하고 있다. 학생들이 OMR 카드에 답안을 쓰면 조교들이 채점 기계를 이용하여 채점하고, 다시 채점된 결과를 전산 처리한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성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담당 과목 교수들의 부담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채점의 신속함과 공정함을 기할 수 있다.

7.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

전통적으로 서강대 졸업생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또 많은 졸업생들이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교 이후 독특하게 개발·운영된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학교 당국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대외적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韓國大學 敎育協議會에서 주관한 1986년도 교양영어 평가에서 평가 교수단이 본 대학의 교양영어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한 바도 있다.

대외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서강대 학생들도 본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自體 設問調查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로 학생들의 영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학생 중심의 수업이라는 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小單位授業은 교수와 학생 모두가 그 효율성을 높이 인정하고 있지만, 大單位授業에 대해서는 교수와 학생의 반응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교수들은 대단위 수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데 비해, 적지 않은 학생들이 대단위 수업을 더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위 수업에서 제공받는 비디오 테이프나 독해 자료를 통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학생들에게 교양영어 필수 학점을 12 학점이나 부과하는 것에 대해 異見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학생들이 12 학점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기보다는 그 중 몇 학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교육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교양영어 필수 과목이 줄어들고, 또 餘力이 있다면 3, 4 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양영어 선택 과목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금의 추세로 보면 교양영어 필수 학점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양영어를 선택 과목으로 택하리라 생각된다(1986 학년도 2 학기 예비 수강 신청에서 전체 학생수의 10% 이상이 교양영어 선택 과목을 신청하였음).

8. 발전 방향

지금까지 서강대의 영어 교육에선 커뮤니케이션 수업이 중시되어 왔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듣기, 말하기 교육과 TV를 통한 영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게다가 영어 학원을

통한 교육도 일정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부 변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서강대의 영어 교육도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룬 영어 작문, 영어 독해 부분을 심화·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현행 교양영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편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재편성해야 할 것이다.

자격 있는 외국인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교육 비자를 받은 외국인을 구한다는 것은 재정적, 인적 요인을 감안해 볼 때 대단히 힘든 일이다. 가능하다면 자격 있는 외국인 교수가 많이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는, 그 次善策으로 소수의 외국인 전임교수를 채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작성, 교사 훈련 등에 참여케 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인 교수가 자립적으로 영어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해서는 核心 要員으로서의 외국인 교수와, 수업을 직접 영어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과 자격을 갖춘 한국인 교수가 함께 한 팀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